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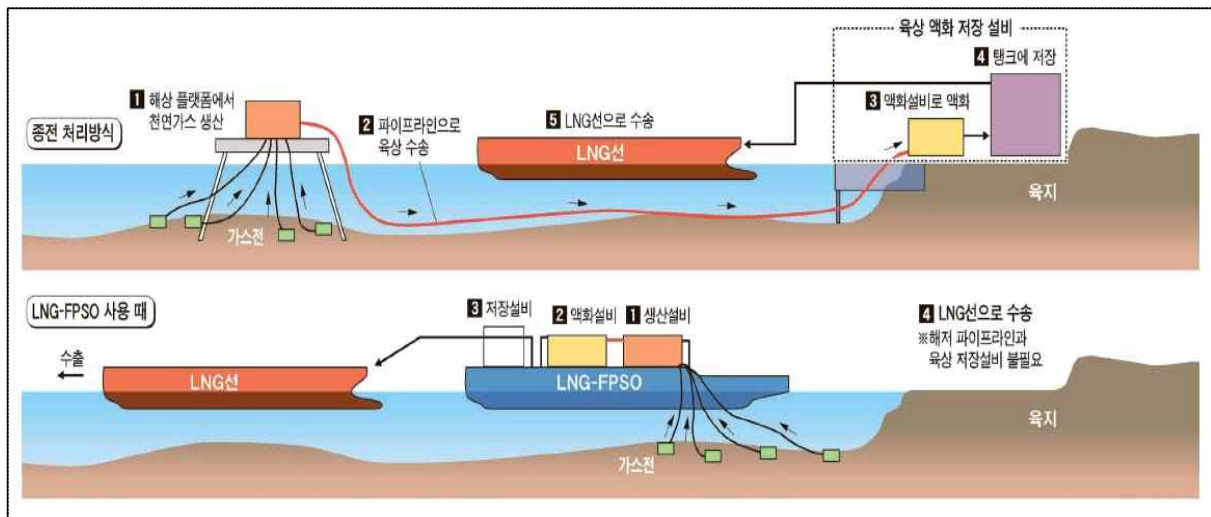
배포일시	2021. 11. 16.(화)	담당부서	조선해양플랜트과 가스산업과
담당과장	권혜진 과장(044-203-4330) 김진 과장(044-203-5230)	담당자	여수향 사무관(044-203-4332) 김세민 사무관(044-203-5216)

한국 조선사,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바다위의 천연가스 종합 생산 공장인 FLNG 세계시장 석권

- 전 세계 4번째 「Coral Sul」 FLNG, 11.16일 출항하여 22년부터 본격 LNG 생산 -
- 모잠비크 Area4 광구는 세계 최대 가스전, 추가적인 FLNG 등 조선 발주 기대 -
- 내년부터 LNG 운반선 17척 (국내 조선사 수주 역사상 최대규모 건조 착수 예상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11월 16일 전 세계 4번째 FLNG인 Coral Sul FLNG가 경남 거제에서 모잠비크로 출항했으며, 22년 1월초 모잠비크 코랄 가스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FLNG(LNG-FPSO*)는 해상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배 위에서 직접 정제하고 액화해 저장·하역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로,
 - * FPSO :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-loading
- 육상플랜트 대비 액화·저장설비 및 해상파이프를 설치하지 않아 환경 보호 측면에서 우수하며,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.

<육상처리방식 및 FLNG 생산방식 비교>



□ 우리나라 조선소는 글로벌 FLNG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출항한 Coral-Sul FLNG를 포함하여, 전세계 대형 FLNG 4기를 모두 건조하게 되는 쾌거를 달성했다.

○ 세계 최초로 수주한 세계 최대 FLNG인 Prelude(삼성중)를 시작으로 세계 최초로 건조한 PFLNG Satu(대우) 등 3척의 FLNG는 현재 호주와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LNG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,

* 업계에서는 174k급 LNG운반선(길이 300m, 폭 45m 전후)보다 큰 규모일때 대형 FLNG로 통칭

○ 이번 Coral-Sul FLNG는 모잠비크 최초의 FLNG로서, 모잠비크 Area4 광구內 코랄가스전으로 이동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LNG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.

< 전세계 대형 FLNG 현황 >

발주처	설비명	조선소 (국적)	수주	건조	크기(m) (길이x폭x높이)	생산능력 (만톤/年)	비고
Shell	Prelude	삼성(韓)	2011-11	2018-12	489x74x43	350	세계 최초 수주 세계 최대 규모
Petronas	PFLNG Satu	대우(韓)	2012-06	2016-05	365x65x33	120	세계 최초 건조
Petronas	PFLNG Dua	삼성(韓)	2014-02	2020-02	393x64x31	150	-
Eni	Coral Sul	삼성(韓)	2017-06	2023-02 (Warranty 기간 포함)	432x66x39	340	-

□ 가스전 탐사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% 규모로 참여하고 있는 모잠비크 Area4 해상광구는, '20년 국내 LNG소비량 기준으로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매장량을(원시부존량 85TCF*) 가진 21세기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으로,

* 2020년 국내 LNG소비량 기준 30년치 (TCF(Trillion Cubic Feet) : 1조 입방피트)

○ 가스전 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LNG 생산량 증산시 이를 운반할 LNG운반선의 발주가 예상되어, 현재 글로벌 LNG운반선 시장을 선도*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,

* '21.10월 기준 전세계 LNG운반선 발주 총 55척 중 91%(50척) 국내 수주

- 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육·해상 플랜트 및 해상경비정 등이 발주되는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의 추가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아울러, 우리나라는 20년에 모잠비크 Rovuma Basin 內 Area 1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LNG 운반선 17척(\$ 31.59억 규모)을 수주한 바 있다.
 - 이는 환산톤수(CGT) 기준 국내 조선사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*(149만CGT)이며, 수주액 기준으로는 최근 7년(15년~21.10월) 내 국내 최대 규모**(약 32억\$)이다.
 - * 기존 CGT 최대치 : '18.9월 H&M 해운재건 프로젝트 컨선 20척, 140만 CGT
 - ** '14년 대우조선 야말프로젝트(러) 쇠빙LNG운반선 15척 47.4억\$ 수주 이후 최대
 - 향후 모잠비크 현지 사정이 더욱 안정화되면서 Area1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본격적인 건조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향 사무관(☎ 044-203-4332) 가스산업과 김세민 사무관(☎ 044-203-52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모잠비크 Area 4 광구 사업개요

□ 가스공사가 '07년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Area4 광구에서 대규모 가스(원시부존량 85Tcf*)가 발견됨에 따라 단계적 개발 추진중

* 85Tcf(85조 ft³): 국내 LNG소비량('20년 기준 약 42백만톤)의 약 30년치 해당

■ 광구 위치

- 위치 : 모잠비크 동북부 해상
 약 60~80km
 - 수심 : 1,500~2,600m

⇒ Area4 광구내에서 ①Coral South FLNG, ②Rovuma LNG 사업 진행중

■ 참여사 및 지분현황

참여사		지분율	
Mozambique Rovuma Venture (운영사)	Eni(이태리)	25%	70%
	엑슨모빌(미국)	25%	
	CNPC(중국)	20%	
한국가스공사		10%	
Galp(포르투갈)		10%	
ENH(모잠비크)		10%	

- ① (Coral South FLNG사업) Coral South 가스전 개발사업으로 연간 3.4백만톤의 LNG를 부유식 액화터미널(FLNG) 방식으로 생산 예정
 - (사업경과) 연내 완공하여 FLNG선박 출항('21.11) → 생산('22.5) → 첫 LNG 출고('22.10) 예정
- ② (Rovuma LNG 사업) Mamba 가스전 개발사업으로 연간 15.2백만톤의 LNG를 육상 액화플랜트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사업
 - (사업경과) 당초 '20년에 최종투자 결정하고 '24년부터 LNG 생산 예정이었으나, COVID-19 확산 등 사업환경 악화로 최종 투자 결정을 잠정 연기